

2018년 공공기관 정책방향

개 요

- **주　　제**　2018년 공공기관 정책방향
- **일　　시**　2018년 5월 16일(수), 07:00~08:10
- **장　　소**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A(B1F)
- **진행순서**

07:00~07:20　**조찬**
　　송대희 좌장
07:20~08:10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08:10　**폐회**

* 본 원고는 2018년 5월 16일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A(B1F)에서 『2018년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52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송대희/좌장

오늘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그간의 정책과 운영에 관해 점검해보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해주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님은 다양한 자리에서 공공정책 관련 업무를 통해 쌓은 전문성뿐 아니라 실제 공공기관에 몸담으신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 공공기관의 발전과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발표 요약

2018년 공공기관 정책방향

김용진/기획재정부 제2차관

오늘 제가 말씀 드릴 주제는 2018년 공공기관 정책방향입니다. 공공기관에 수많은 변화 요구와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돌이켜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Ⅰ. 문제 인식

과거를 돌이켜보면 공공기관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 혁신 등의 어젠다를 세워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아 왔습니다. 공공기관은 왜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요?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과 같이 주주와 고객의 입장을 강조하며 운영되었습니다. 민간기업이 주주를 위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공공기관도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같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은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역할은 이러한 경영관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 국민은 민간기업과는 다른 무언가를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 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공공성의 회복, 사회적 가치, 공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와 사회적인 어젠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이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08% 수준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1995년 이후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배 이상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국가 경제 상황이나 사회 변화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상대적

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지를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관리적인 측면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정작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과 국민이 바라는 공공기관의 모습과 다르게 운영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사전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데에 노력해왔는가도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 큰 만큼 국회, 감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공공기관을 중첩적으로 감시가 이루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공공기관 또한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마다 제기되는 공공기관의 비리나 방만 경영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을 줄이고자 공공기관에 적용해 온 과거의 많은 규제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Ⅱ. 정책 방향

공공기관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인식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기업은 여러 번의 실패가 있더라도 한 번의 성공이 있다면 칭찬과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여러 번의 성공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패로 인해 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실패를 극복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가치는 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의 공정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에 있어 도덕과 윤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윤 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때 국민에게 칭찬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움직이고 혁신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역할 변화가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결정해 책임져야 할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하는 관행화된 절차를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근거 없는 관행에 대해서는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별 설립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지나친 포괄적 관리 감독 조항 또한 정비하여야 합니다. 사전 협의, 승인 등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획일화된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장형 공기업이라면 관리 감독이나 평가도 시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 감독 체계는 획일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평가만 추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공공기관의 변화를 저해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책임을 다하는 투명한 공공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가장 기본입니다. 다른 성과가 아무리 뛰어나도 책임 · 윤리 경영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공정한 절차와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의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공기관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역할과는 관계없이 부처와 공공기관 모두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본래 정책의 심판자이자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을 관리, 통제하고 감독하고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사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전문가 집단을 대변하여 공공기관과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의제를 내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지 본연의 업무를 평가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평가의 기술적인 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경영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경영평가 운영에 있어서도 평가단과 함께 평가 체계와 지표에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와 정부부처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발전에 힘쓰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마무리말씀

송대희/좌장

공공기관은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핵심으로 재정립하는 변화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국민의 생각이 변화함에 따라 공공기관도 함께 이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모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부터 공공기관은 앞장서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기관의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